

무지개 다리는 가장 진보된 사찰 교각

무지개 다리(2)

무지개다리는 일명 홍예교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술력이 부족하였던 과거에는 가장 진보된 형식의 다리였다고 할 수 있다. 무지개다리는 상부하중이 홍예의 축선을 따라 전달되며, 다리의 하부에는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계한 매우 공학적이고 과학적인 다리이다. 이 다리는 만드는데 공이 많이 들었기 때문인지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선택된 공간에서만 볼 수 있어 꽤나 귀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무지개다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에는 만든지 오래되었고, 작품성이 뛰어난 여러 개의 다리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의 무지개다리 가운데에서는 순천 선암사(仙巖寺)의 승선교(昇仙橋)가 대표적이다. 이 다리는 보물 제400호로 지정된 조선후기의 다리로 만든 솜씨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리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이 다리에 서면 마치 속계에서 선계로 올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이 그 자체가 아름답다. 특히 홍예를 틀고 있는 반원이 물에 비친 반원과 합쳐져 하나의 둥근 원을 이루는 원상(圓像)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사찰의 다리로서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고 있다. 승선교는 기저부에 별다른 시설물 없이 자연암반을 이용하여 육중한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데, 다리의 길이가 14m, 높이가 7m, 너비가 3.5m로 다리를 만들 당시에는 그 규모가 작지 않은 다리였을 것이다. 다리의 디자인을 보면, 잘 다듬은 장대석(長臺石)을 종으로 1단씩 빈틈없이 밀집시켜 스스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홍예를 틀었는데, 홍예를 중심으로 아랫부분에는 큰 돌을 쌓아올리고 좌우의 계곡 기슭까지의 사이에는 둥글둥글한 냇돌을 사용하여 석벽을 쌓아 막았다. 홍예 한복판에는 용머리를 조각한 돌이 밑으로 삐죽 나와 있어 석축에 장식적 효과를 주는데, 사실은 벽사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다른 사찰의 무지개다리에서도 볼 수 있다. 승선교 아래에 서면 홍예를 사이로 누각이 하나 보이는데, 이 누각은 강선루(降仙樓)라는 이름을 가진 2층 집으로 승선교와 의미적으로 소통하며, 승선교의 아름다움을 보태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웃하는 송광사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송광사 무지개다리는 계류를 건너 대웅전이 있는 중심영역으로 이동하는 통로의 기능을 하는데, 이름은 삼청교(三淸橋) 혹은 능허교(凌虛橋)라고도 부른다. 이 다리는 19개의 네모난 돌을 짜 올려 홍예를 이루었으며, 양옆에는 다듬은 돌을 쌓아 올려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홍예의 한 가운데에는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머리를 만들었는데, 구성기법이나 의미는 선암사의 승선교와 다르지 않다. 조선 숙종 33년(1707)에 이 다리를 만들었다고 하니 다리의 역사가 꽤나 장구한 편이다. 삼청교 위에는 우화각(羽化閣)이라 이름 붙여진 건물을 지어놓았다. 우화라는 말은 우화등선(羽化登仙)에서 따 온 말로, 날개가 생겨 하늘로 날아올라 신선이 된다는 뜻인데, 불교적 세계와 신선의 세계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던 모양이다. 이 누각은 다리 위에 지어진 몇 되지 않는 건물 가운데 하나로 삼청교와 더불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59호로 지정되어 있다. 우화각은 특이하게도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는 팔작지붕을 하고 있고, 나가는 쪽에서는 맞배지붕으로 되어있다. 나가는 쪽에서는 옆 건물의 지붕과 닿아 지붕을 길게 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고안된 형식일 것이니 이러한 지혜 역시 사찰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적 해결방법일 것이다. 송광사 우화각 역시

물에 비치는 원상이 아름답기로 이름이 있는데, 원상이 물에 비치는 계담은 심미적 장소이면서 동시에 불교적 상징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다.

여수 흥국사 들어가는 길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이 무지개다리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무지개다리 가운데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다리이다. 다른 무지개다리와 마찬가지로 이 다리도 계류 양쪽 기슭의 바위에 기대어 돌을 쌓아 만들었으며, 다듬은 돌을 서로 맞추어 들어 올린 다리 밑은 무지개모양의 홍예를 이룬다. 홍예 옆에는 둥글둥글한 돌을 쌓아 올려 다리를 완성하였는데, 다른 무지개다리에 비해서는 다리가 길게 뻗어있어 시원한 느낌을 준다. 홍예의 한복판에는 양쪽으로 마룻돌이 튀어 나와, 그 끝에 용머리를 장식하였다. 조선 인조 17년(1639)에 만들어진 이 다리는 현재 보물 제 563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성 건봉사에도 무지개다리가 있다. 이 다리는 이름하여 능파교(凌波橋)라고 하는데, 곡성 태안사의 능파교와 이름이 같다. 이 능파교는 대웅전영역과 극락

순천 선암사 승선교가 대표적 다리

송광사 우화각 물에 비친 원상 아름다워

흥국사 현존하는 가장 큰 무지개 다리

태안사 번뇌 넘어 불국토 가는 통로

전영역을 연결하고 있는 것으로 규모는 폭 3m, 길이 14.3m, 다리 중앙부의 높이는 5.4m이다. 다리의 한 가운데에는 다듬은 돌을 이어 맞춰 홍예를 틀고 그 좌우에는 장대석으로 쌓아서 다리를 구성하였다. 홍예는 하부 지름이 7.8m이고 높이는 기석의 하단에서 4.5m이다. 조선 숙종 34년(1708)에 건립된 경내 불이문 옆의 능파교신창기비(凌波橋新創記碑)에는 이 다리가 숙종 30년(1704)부터 숙종 33년(1707) 사이에 처음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보물 제13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사찰의 무지개다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다.

곡성 태안사에도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다. 이 다리는 축조술이 뛰어난 홍예교도 아니고 장식성이 특별한 다리도 아니다. 단지 계곡 양쪽의 바위를 이용하여 돌축대를 쌓은 다음 그 위에 두 개의 큰 통나무를 받쳐 건물을 올렸는데, 산사에 어울리는 다리의 투박함과 건물의 수수함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든다. 다리 위에 지어진 건물의 이름은 능파(凌波)인데, 미인의 가볍고 우아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한다. 다리를 건너는 쪽에서 보면 이 건물은 앞면 1칸, 측면 3칸 집이며, 맞배지붕을 하고 있다. 금강문으로서의 기능과 다리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는 이 건물은 번뇌의 파도를 넘어 부처님세계로 가는 통로인 것이다. 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보이는 다리의 모습은 진정 이러한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현재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 82호로 지정되어 있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홍예를 틀고 있는 반원의 원상이 아름다우며 불교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사찰다리로 갖춘 것은 다 갖춘 보물 제40호 순천 선암사 승선교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백양사 무지개다리



송광사 누다리인 청량각과 극락교



우리나라 누다리의 대표적 작품인 태안사 능파교



천은사 수홍루와 무지개다리